

대구주보

연중 제31주일
2013.11.3.(다해) 제1861호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자캐오가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돌무화과나무 - 예리코(이스라엘)

† 오늘의 전례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루카 19,1-10 참조)

자캐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고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죄하시고 가장 깨끗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낫게 해 주시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제1독서 지혜 11,22—12,2

제2독서 2테살 1,11—2,2

복음 루카 19,1-10

입당송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예수님께 보내는 비밀엽서

김해인 바드리시오 신부 | 5대리구 청소년담당



‘비밀엽서’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비밀엽서는 어느 예술가로부터 시작된 운동인데, 그는 사람들에게 엽서를 한 장씩 나누어주고 ‘인생 최고의 비밀’을 간단하게 적어 익명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엽서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예술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일종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움, 후회, 수치, 욕망, 슬픔, 유쾌함이 가득한 한 장 한 장의 엽서에서 사람들은 뜻밖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캐오는 예수님을 단 한번 만나고 깜짝 놀랄 결심을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누군가에게 내어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캐오가 이런 결심을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자캐오의 마음은 외로웠고 공허했음을, 그리고 어떤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합니다. 성경은 자캐오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주위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고, 공공연한 죄인이었다.” 로마제국에 세금을 가져다바치는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고,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화폐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 죄인이라는 천시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부를 축척한들 자캐오의 마음은 아마도 황폐했을 것입니다. 자캐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꾸만 자

기 자신 안으로 파묻혀 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캐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한 말씀을 건네어 주십니다. 군중의 비난 어린 시선과 질타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을 건네십니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캐오의 모든 비밀, 죄책감, 좌절감, 욕구 등을 꿰뚫어 치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주시는 음성입니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오늘 1독서는 하느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 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마음의 집에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 내면의 고백을 요구하는 말씀이고, 그로 인해 우리를 자유롭게, 편하게, 홀가분하게 하겠다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과 실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 조용히 비밀엽서 하나 써보심이 어떠신지요?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어서 고해성사를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Hodie Mihi, Cras Tibi)”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

위령성월은 죽음에 대해 묵상하고 누구에게나 닥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위령성월에는 먼저 인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묻혀 부활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이라 하면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들고 무섭게 여기기 쉽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참 생명으로 건너가는 과정이자 주님을 닮는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연중 마지막 시기이자 전례주년을 마무리하는 위령성월에, 어떻게 살아야 복된 마지막을 맞이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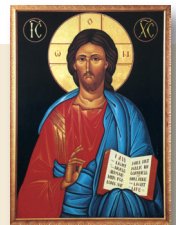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위령성월 신심은 살아 있는 이들이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정에 나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룬 모든 신자들이 지상에 살아있건 하늘나라나 연옥에 있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주님의 구속 공로를 함께 누린다는 교리입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 나라에 계시는 성인들도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전

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화의 장소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는 더 이상 공로를 쌓을 수 없으므로,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기도와 자선으로 이들의 속죄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령미사는 바로 이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생존해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위령성월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자에게 연옥영혼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가 주어집니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1코린 15,55)

교구청 성직자묘지의 입구에 새겨져 있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Hodie Mihi, Cras Tibi)라는 격언은 죽은 이들이 산 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죽음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며, 주님을 위해 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세례 때의 약속을 마침내 실행하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봉헌입니다. 위령성월을 맞아 다시 한 번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신앙인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 친지들, 특별히 버림받은 연옥 영혼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절히 청합시다. **궤문**



신앙의 해 교리 퀴즈 28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기도생활에 대해 가르치면서 기도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경문을 외거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말함으로써 바치는 기도, 생각으로 바치는 기도,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비로운 기도가 그것입니다. 이 기도 형태들을 각각 무엇이라 부를까요?



() 기도, () 기도, () 기도. (가톨릭교회교리서 2700-2719항)

이 코너를 오려 정답을 적으시고 이름, 세례명, 소속본당 기재 후 교구 문화홍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염’에서 구하소서

김요한 세례자요한 신부 | 매호본당 보좌

2011년 3월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은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드러난 방사능 오염수 방류 소식은 일본 해산물에 대한 불신을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이런 오염 외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고 광고에서는 각종 공기청정기, 세균 세정제를 써야한다며 소비자들을 부추깁니다.

안팎으로 ‘오염’에 몸서리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한 환경, 깔끔한 모습을 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부분들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옛날과 비교했을 때 길거리나 간판들, 건물 내 시설들도 청결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청결함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이 시대는 겉으로 드러나는 깨끗함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작 영적인 깨끗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듯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들의 영혼이 보고 듣는 오늘날 문화는 갈수록 감각적이고 원초적으로 흘러갑니다. 영화에서는 멋진 몸매의 연예인이 나오거나 잔인함이 담긴 영상이 나오고, 광고에



서는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10대들이 열광하는 가요에서도 낮 뜨거운 연출과 가사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보고 듣는 영상, 사진, 노래를 통해 우리 영혼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손 세정제가 놓여 있다면, 향균 제품을 쓰고 있다면 나의 영혼에도 신경 쓰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신앙인에게는 아침, 저녁기도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아침엔 하루를 선물해 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저녁엔 하루 동안 지은 잘못과 허물에 대한 용서를 청합니다. 영혼을 해하는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 무심코 보게 된 매체들에서도 우리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다면,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아침 저녁기도는 더더욱 필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성실한 아침, 저녁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필문**

치유의 근원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치료를 거부하며 아무도 만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가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씩 만나던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 왔습니다. 가족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 번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 보렴.” 하며 그 꼬마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30여 분 동안 꼬마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난 뒤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치료에도 순순히 응하고 수술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도 이상하고 궁금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할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했니?” “아무 얘기도 안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30분 동안이나 할아버지랑 뭘 했니?” 그랬더니 그 어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저요? 할아버지랑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을 통해 할아버지의 아픔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안주시고 아픔을 낫게 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죄 많은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이자 구원인 것입니다. **빛의**



금주의 성인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11월 3일)

자비의 사람, 빗자루 수사로 불리는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인께서는 혼혈 사생아로 태어나 가난과 멸시 속에서 성장하셨다.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여 평수사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신 성인께서는 노예와 고아, 병자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데 헌신하셨는데 한번은 수도원이 빗을 진 것을 알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하셨다고 한다. 자비와 겸손, 순명의 모범을 보이신 성

인께서는 요한 23세 교황님에 의해 신대륙의 첫 흑인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성인께서는 인종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사람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고 있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10일 일요일은 (故) 박춘택 베드로 신부님 8주기입니다.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전시회 및 최종 결선 시상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요한1,14)를 주제로 신앙의 해를 맞아 개최되었던 영성사진 콘테스트가 최종 마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여해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선작들에 대한 전시회와 최종 결선시상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영성사진 콘테스트 당선작 전시회

콘테스트 기간 중 선정된 매월 당선작(총 33점)에 대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3년 11월 15일(금)~19일(화) | 장소: 교구청 내 한옥(안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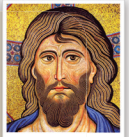
• 영성사진 콘테스트 최종 결선 시상

영성사진 콘테스트 기간 중 매월 당선작에 한해 최종 심사를 거쳐 교구장 대주교님께서 직접 시상하십니다.(당선작은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일시: 2013년 11월 20일(수) 11:00 | 장소: 교구청 본관 2층 대회의실

시상내역: 최우수상(1명): 상패 및 상금 100만 원

우수상(2명): 상패 및 상금 50만 원 | 장려상(3명): 상패 및 상금 30만 원



2012
2013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옥탑교리방'

가톨릭 청소년 교리서(YOUCAT)를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설하고 토론하는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프로그램으로, 회당 30분 분량을 연간 20회 송출합니다.

• 팟캐스트 청취방법(스마트폰, PC)

아이폰 팟캐스트 앱의 스토어 메뉴, 안드로이드폰 팟드로이드 앱에서 '옥탑교리방' 검색
아이튠즈 실행 후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옥탑교리방' 검색 또는 교구 홈페이지 메인 '옥탑교리방' 배너 클릭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28주일(10월 13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 정답은 <흠숭>입니다.

당첨자 : 양수산나(수산나, 계산), 김귀숙(크리스티나, 만촌1동), 손혜영(루시아, 사동),

전영이(세실리아, 상모), 구수이(세실리아, 계산)

살아생전 잘 살아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말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1월 4일(월) 11:0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4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1월 4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
11월 후원자 가정을 위한 월례미사	11월 4일(월) 11:30 한국SOS어린이마마을 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1월 4일(월) 22:00 한티순례자의 집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1.9(토) 16:00
장소: 예수회 한국관구 본부
주제: 예수회원의 행동양식
문의: (010)8589-9880
vocsj@hanmail.net

2013 하반기 성소 식별 피정

기간: 11.9(토)~10(일)
장소: 툿핑포교베네딕도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313-3431
베네딕도회의 삶과 영성을 소개합니다

107차 대구 선택 주말

기간: 11.15(금)~17(일), 꾸르실로교육관
대상: 미혼 남녀 신자, 예비자
마감: 선착순 50명
문의: 황 임마누엘라, (010)2958-5215
http://cafe.daum.net/daeguchoice

서울대교구 삼성산 11월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1.8(금) 18:00~10(일) 15:00
장소: 삼성산 피정의집 대성전
문의: (010)4938-7076(회비 무료)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11.19(화)~20(수) / 매월 셋째 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 하는
주교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성베네딕도회와관수도원 허성준(OSB) 신부와 함께하는 성독 전체 피정

일자: 11.30(토) / 12.1(일), 한티피정의집
강의: 영성생활과 노동의 중요성
강사: 이경희(엘리아) 수녀 / 6만 원
문의: (010)4127-5758

교육 | 모집

2014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1.4(월)~8(금) 9:00~16:30
자격: 07.1.1~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방법: 컴퓨터 추첨,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요셉 발 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보면 우리의 건강이 보인다. 건강법
을 배워 가족, 이웃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일시: 매주 토 14:00~16:00
장소: 가톨릭 문화관 118호
문의: 476-7774(www.footfather.com)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기간: 12.31(화)~1.28(화)
대상: 초4~고3(선착순: 50명)

문의: 656-6655(ARS 4번)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 중
문의: 593-1273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코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문의: 476-6211

가톨릭상지대 원격평생교육원 교육생 모집

학점은행제 학위 과정(원격 수업)
개강: 11.14(목)
모집분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문의: 1577-0361(www.cec.or.kr)

제43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4.1.4~2.23(3, 5, 7주)
정규학교 아일랜드학생들과 수업
대·일반: 1.6~2.16(6, 10주, 장기)
주관: 마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기간: 14.1.4(토)~2.15(토), 6주
장소: 필리핀 팍상안 수도원(초4~중2)
문의: 천주교마리아의아들수도회,
(031)207-4982(선착순 접수)
http://blog.naver.com/cficengcamp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서정희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십내과 심장전문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조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www.appleuro.com
애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여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인공신장실
신장 전문 수 내과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진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행사 | 모임

제39회 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주제: 빛)

기간: 11.5(화)~10(일)

장소: 봉산문화회관 1전시실

대구가톨릭문인회 글그림전 개최

기간: 11.6(수)~9(토)

장소: 성모당 내 한옥(안익사)

가톨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와 후원의 밤(R석 3만 원, S석 2만 원)

일시: 11.10(일) 19:30

장소: 수성 아트피아 무학홀

지도: 김중현(발다살) 신부

문의: 425-3943

교육 | 모임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11.27(수) 13:30~16: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5천 원

주제: 경쟁사회에서 청소년의 인성과 소통

강사: 차상은(대가대 대학원 외래 교수)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정평위 '함께꿈' 월레미사 및 특강

일시: 11.13(수) 19:30, 1대리구청 강당

주제: 아이들을 위한 참 교육

강사: 박노현 교수(전 서울시 교육감)

주최: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성요셉요양병원(구, 논공가톨릭)영성치유

치매, 중풍, 말기암, 노인성질환 교우

분을 정성으로 보살펴 드립니다.

장효원(요셉) 신부님과 매일 미사를 봉헌하며 영성치료를 느껴보세요!

입원상담: 615-4871

시편성가발성법 연수

일시: 11.3(일) 15:00

뿌에리 칸포레스 19기 단원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자폐, 지적, 정서장애 아동 모집

교육: 방과후, 건강증진, 토요일교실

치료: 언어, 미술, 원예, 놀이치료

문의: SOS아동복지센터, 985-3217

행복한재활요양병원 자원봉사자 초빙

노인성질환 교우분들을 정성으로

보살펴 드리는 자원봉사자를 초빙

합니다. 매주 레지오회합과 미사를

봉헌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문의: 김요세피나, (010)3503-8427

채용 | 안내

안드레아 유치원 교직원 채용

2014년 3월 개원 예정, 현풍성당 내 위치

문의: (010)9922-7952

참조: 교구 홈페이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3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혜영(리디아), 김태식(요셉)

Lemuel Graham, 손은영(레아),

원정환(안드레아)

2014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4년도 대구주보에 게재될 광고는 순번추첨방식을 통해 접수합니다. (대기번호표는 없음) 순번추첨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1차 추첨**은 사전서류접수 기간 내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업체에 한해 진행합니다.
1차 순번추첨 일시: 11.25(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사전서류접수 기간: 11.4(월)~11.19(화),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2차 추첨**은 추첨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신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차 순번추첨 일시: 11.25(월) 13:00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님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비는 전액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업주가 냉담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시우 신경
http://적추외과 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스마트폰 전문점
두루텔레콤 SKT, KT, LGT
▷ 인기 기종 : 삼성 갤럭시(노트2, 갤럭시)
공동구매 최저가 판매
053-653-5011 내당역 3번 출구
011-444-1800 장현순(엘리사)

에이 통증의학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냐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홍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달성피부과
ME 66차 부부의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흉터 · 주름 · 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성모아이한의원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아노증/성장장애 • 감기예방
“먹기 좋은 딸기맛 증류한약”
한 의 학 박 사
원 통국대 한의학과 교수 김 성 철(비오)
☎ (053)592-1275

통영생물
통영 바다농장
● 미국 FDA가 승인한 청정해역에서 채취한 굴
● 자연산 채로만 사용한 통영굴
● 현지에서 당일 채취한 통영굴 발송
※ 3Kg 이상 무료배송 (시세변동)
경남 통영시 산양면 055)649-8712
담당자 최기성(요셉) 010-4840-7665